**13. 분재란?**

분재(盆栽)라는 말은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한자인 ‘분(盆)’은 ‘쟁반’과 ‘접시’를 의미하고, 두 번째 한자인 ‘재(栽)’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얕은 화분에 심어진 나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분재가 가지는 일본의 정신 및 문화적 의의까지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본어의 ‘분재'라는 말은 생긴 지는 200년 정도로 그리 오래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 두루마리나 그림을 보면 이러한 예술 형식이 1300년 정도 전의 중국 원예 문화에서 유래되었고, 일본에는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에 선불교와 함께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산(盆山)’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미니어처 나무와 함께 사용된 산 모양을 한 돌을 말합니다. 이 둘을 조합해 디오라마 같은 풍경을 만들어 자연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과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분재도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성 들여 가꿔 자연을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형태로 만들어 살아있는 자연 속 식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섬세한 미를 표현한 것이 분재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분재라고 하면 위로 뻗은 모양의 정해진 나무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 분재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재란, 예술적인 표현과 감상을 목적으로 나무를 매우 작은 크기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수 세기에 걸쳐 갈고닦아 온 기교입니다.